이덕일의 '역사의 창'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관

지난 5월 17일 일본 도쿄의 학사회관(學士會館)에서 한일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학사회관을 운영하는 학사회(學士會)는 일본 제국대학 출신들이 회원으로 운영하는 단체다. 도쿄 제국대학, 교토 제국대학 등 일본 내의 7개 제국대학과 서울에 설치했던 경성 제국대학과 대만에 설치했던 타이페이(台北) 제국대학 출신들이 회원이다. 일본에서는 오구라 기조 교토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했고 한국 측에서는 필자가 기조 강연을 했다.

필자는 현재 한일 두 나라 정부 사이는 좋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 한국인들은 아주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는 제국주의 시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일본은 물론 한국의 역사학계도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역사학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서기'를 보면 663년 백제 부흥군의 수도가 함락되자 야마토왜(大和倭)의 지배층들이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언제 다시 가 볼 수 있겠는가?"고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필자는 이 사례를 들면서 "야마토왜인들은 백제의 멸망을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나라, 곧 본국(本國)의 멸망으로 여기고 한탄했다"고 말했다.

백제는 본국이고 야마토왜는 백제가 일본 열도에 세운 분국(分國)이었다. 대륙과 반도와 열도를 아울렀던 대제국 백제의 틀 속에 야마토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를 거꾸로 우기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필자는 "인류 이동의 역사는 대륙에서 반도나 해양을 거쳐 열도(列島)로 이어집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고대 문명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渡來人)들이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제국주의 역사학이 거꾸로 주장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필자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국주의 시절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1873~1961)나 이미니시 류(今西龍:1875~1932) 같은 역사학자들이 이 흐름을 거꾸로 왜곡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쓰다 소키치 등은 일본 민족은 외부에서 도래한 것이 아니라 일본 열도에서 자생했고 이들이 나라(奈良)에 야마토왜를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에서 건너온 것을 열등(劣等)한 것으로 여기는 제국주의적 관점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고대 국가가 세토내해와 현해탄을 건너 한반도 남부를 점령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 일본(日本)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고대사의 복원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침략 전쟁에 이용했습니다. 물론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쓰다 소키치, 이마니시 류 등이 만든 황국사관(皇國史觀), 곧 '야마토왜 중심 사관'으로 서술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관은 일본 열도에서 자생한 야마토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주장한다. '전라도 천년사'가 바로 이 사관에 따라서 고대 전라도를 왜의 식민지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은 물론 한국의 이병도, 신석호 등과 그 제자들이 역사학계를 장악해 제국주의 역사관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것이 한일 화해를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은 현재 역사학계를 장악한 역사학자들과 한국사를 사랑하는 일반 국민들이 서로 적대적인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도 한국 내 곳곳에서 이런 역사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는 역사학자들과 싸우면서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측에서는 현 중의원 의원과 교육상을 역임한 유력 인사들이 참석했다. 필자 강연의 요지는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제국주의 역사관을 버리고 실제 역사 사실에 바탕한 역사 교류를 한다면 진정한 관계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도쿄 한복판에서 확인한 심포지엄이었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여름철 건강 관리

백 상 철
상무365한방병원 원장

여름이 오고 있다. 예년에 비해 올해는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남부 지방은 비가 많이 올 확률이 높은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덥고 습한 날씨가 많은 여름철은 체력을 많이 소모시키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동의보감에 보면 여름철의 섭생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있다. '위생가'라는 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중에서 오직 여름이 섭생하기 어려운데 속에는 찬 기운이 있어서 배가 냉해지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을 보하는 탕약을 끊기지 않게 먹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생활법으로는 찬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여름은 심장의 열이 왕성하고 신장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배설하는 것을 금해서 정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름에 성생활 하는 것을 피하고 충동을 억제해서 정신을 조화롭게 하며 찬 음료와 익히지 않은 채소를 먹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름철 매우 더운 시기에도 우물물이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온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몸 안의 온도가 떨어져서 찬 음식을 먹는 것은 소화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배설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이다.

더위로 인하여 체온이 올라갔을 때 땀이 나는 현상은 인체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땀은 체액의 일부이고 체액이 외부로 유출되면 내부의 체액이 부족해지게 된다. 물은 온도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체액이 줄어들면 내부의 온도도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여름의 보양식으로 삼계탕, 보신탕 등의 따뜻한 음식을 먹는 이유는 냉해진 장기의 온도를 올림으로써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손상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여름에 늘 아이스커피 등의 시원한 음료를 달고 사는 현대인들이 명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생활 수칙이라고 생각한다. 따뜻한 또는 미지근한 물을 섭취함으로써 장기의 온도가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여름철 건강 관리의 핵심이다.

여름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냉방병이다. 동의보감이 저술된 조선시대에도 냉방병이 '음서'(陰暑)라는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다. 서늘한 정자나 찬 물 속에 오래 있는 등 과한 피서로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서늘한 곳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계층은 외부의 높은 온도와 피서지의 낮은 온도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생기게 된다.

높은 온도 차이는 체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냉방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종합하면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너무 낮은 온도로 피서를 하지 않는 것이 여름철 건강 관리의 핵심이다.

여름철에 권하는 좋은 차가 있다. 맥문동, 인삼, 오미자 이 세 가지 약재로 이루어진 생맥산(生脈散)은 여름철에 많이 권하는 탕약이다. 물을 더 많이 넣어서 상복하면 여름철을 나기에 적합한 음료가 될 것이다. 꿀을 넣으면 단맛과 더불어 에너지원인 당을 섭취할 수도 있다. 이 음료를 만드는 핵심은 찬물에 오래 우려내는 것이다.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끓이게 되면 떫은 맛이 우러나서 음료로는 적합하지 않은 맛이 나오게 된다. 맥문동과 인삼을 달인 물을 식혀서 오미자를 넣어 하룻밤 우려내면 맛있는 생맥산차가 된다. 인삼, 맥문동, 오미자 각각 4그램 정도에 물 2리터 정도를 넣으면 된다.

기 고

플라스틱 시대를 잘 사는 지혜

전 동 호
공학박사(도로 및 공항기술사)

'선배님, 폐비닐에 대해서도 좀 써 주십시오.' 남도가 현재보다 더 잘 살게 하고픈 아우의 요청이다. 못할 게 없지. 비닐은 어디서 왔을까? 검은 황금에서 출발한다. 원유를 정제하면 LPG, 휘발유, 납사(Naphtha),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순으로 얻어지는데 18% 쯤 차지하는 납사가 원료다. 이를 다시 NCC 공정에서 분해하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등 기초 유분과 중간 원료가 된다.

거기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열분해 오일이 얻어진다. 비닐은 바이닐(vinyl)기가 들어있는 열가소성 화합물, 바로 합성수지의 하나다. 열에는 녹고 식으면 다시 굳어지는 폴리염화비닐(PVC)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합성수지에는 열경화성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다수의 분자가 융합되면 새로운 고분자 화합물(polymer)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보통 만 개 이상의 분자가 긴 사슬 모양을 이루는데, 이들 석유화학제품 모두를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1909년 베이클라이트(페놀수지)에서 시작됐다. 미국 베이클랜드가 만든 열경화성 화합물이다. 당시 혁신 제품으로 생활 개선 선구자였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급속히 진화하며, 오늘날 모든 산업과 의식주까지 지배하고 있다.

인류 문명을 한 차원 높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여 년간 목재와 철재를 대체하며 많은 천연자원을 지켜냈고, 코끼리를 멸종 위기로부터 구하기도 했다. 당구공, 피아노 건반 등에 들어가던 그 많은 상아를 대체한 것이다. 미래 IT와 우주 개발 신소재도 되고 있다. 신용카드와 성형수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어원과 사용이 '주조하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plastikos)대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큰 단점이 있다. 분해에만 수백 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탄화수소의 유기체인 석유에서 왔는데도, 미생물이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석유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깊은 지각 아래서 쉼 없이 생성되는 비생물 화합물질인지도 모른다. 여하튼 플라스틱은 햇볕에 장기간 노출되면 미세하게 부서져 흙에 섞이고 바다로 흘러가서, 결국 우리 몸이 섭취하는 해악을 일으키기도 한다.

무슨 해결책은 없을까? 재활용을 잘하면 되는데도 마음대로는 안 된다. 분리 수거를 해 봐야 색이 들어가고 종류가 다르면 선별장에서 제적되어 버리고 만다. 각 가정의 수고는 어디로 가고, 다시 매립장이나 소각로로 보내진다. 그러다보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뒤엉키며 산이 되기도 한다.

근본 대책은 없을까? 플라스틱 생분해, 분자 구조 해체, 재가공 연료화 등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곰팡이, 융합물성 환원, 오염 해소 등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하지 못하다. 아직은 타이어를 분해해서 타이어를 다시 못 만들고, 납사로 되돌릴 수도 없다는 문제다. 그렇다면 매립뿐인데, 이 또한 민원과 공간 제한이 따른다.

답은 있다. 사용을 줄이고 회수를 잘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현실은 플라스틱 잔해에 묻힐 판이다. 도시는 더 낫다. 보이진 않기 때문이다. 농어촌은 들에도, 산에도, 집에도, 물에도 널려 있다. 태우면 되지만 냄새와 산불 위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오랫동안 방치되며 흉물이 되고 있다. 치유 대책을 얼른 찾을 때가 되었다.

우선 빈병처럼 수거 보상을 해보자. 점차 지역별 '환경센터'를 설립해 나가자. 거기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가기관과 협업하며 전담케 하자. 매일 수거량이 사용량보다 많게 하자. 플라스틱 찌꺼기가 사라질 때까지 치우고 또 치우게 하자. 온 산야와 먼 바다까지 2050년 탄소중립 깃발을 날리게 하자.

일차적으로 국가가 나서고, 국민의 참여도 있어야 한다. 오늘도 길가에서 비닐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다. 조용히 남도를 가꾸는 현자다. 그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 먹고 사는 불편이 없게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연구 개발 확대와 '덜 배출하고 더 줍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

社 說

지자체 인구 늘리기 소모적 경쟁 되지 않도록

수십 년 앞조차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 자치단체들이 파격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전남 시군들이 최근 새롭게 도입한 정책은 집값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빈집 '전대'(재임대) 방식의 주거 대책이다. 화순군은 기존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게 집을 전세로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을 받고 재임대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임대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1만 원 임대 아파트'는 50명을 뽑는 1차 공모에서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진군은 농촌 빈집을 고쳐 저렴한 값에 도시민에게 빌려주고 있다.

파격적인 출산·양육 수당을 내건 시군도 있다. 강진군은 소득 수준·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한 명당, 월 60만 원을 생후 84개월까지 지역 화폐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순천시는 오는 7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첫째아 8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의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한다. 장흥군은 결혼 장려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광군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준다.

지자체들의 정책 경쟁은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더 이상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고육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에서는 교육·직업 등의 사유로 6500명이 순유출됐는데, 주거 등 때문에 순유입한 인구는 400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전남 지자체들의 인구 늘리기 정책 효과가 단발성에 그치고, 자칫 소모적인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점을 되새겨 일자리 창출과 보육·주거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방치된 광주 테마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주제로 조성된 광주 지역 테마마을이 지자체들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다. 5월은 매년 5·18 행사가 열리는 데다 올해는 비엔날레까지 겹쳐 광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었는데 명소로 알고 테마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실망감만 안기고 있는 것이다.

광주 지역 테마 마을은 서구 양동 발산마을과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이 대표적이다. 두 곳 모두 지자체가 낡은 주택가를 개성 있게 꾸며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조성한 곳이다. 발산마을은 광주 서구가 2015년 50억 원을 들여 '청춘 발산마을'이란 브랜드로 청년들의 입주를 유도한 곳이다. 하지만 12개의 청년 입주 공간은 현재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았다. 중국인 팬들이 광주 출신 아이돌 그룹 BTS의 제이홉 생일을 기념해 그린 벽화는 얼굴 일부가 뜯겨져 나간 상태로 발산마을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방문자센터는 찾는 사람이 없고 곳곳에 이불과 막걸리병 등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펭귄마을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외면받기는 마찬가지다. 체험 장소는 문이 잠겨 있고 포토존은 너저분하게 방치돼 있으니 말이다.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오랜만에 펭귄마을을 찾았다는 부부의 말이 아프게 다가온다. 이 부부는 "비슷한 테마마을인 군산 철길마을은 매년 방문해도 늘 진화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펭귄마을은 볼 게 없어 다시는 찾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 테마마을이 이렇게 된 데는 지자체가 조성만 하고 관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맡겨 두기 때문이다. 테마마을 주민들은 대다수가 고령 노인들인데 이들에게 맡기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질 리 없다. 이번 기회에 초심으로 돌아가 테마마을을 재검검하고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줄과 조직

근대 정당이 출현한 것은 19세기 중반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가진 정당들이 후보들을 제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단체'인 정당을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명망가 정당'과 '근대적 정당'으로 구분했다. 근대적 정당은 민주주의, 대중의 선거권, 대중 운동과 대중 조직의 필연성, 통일적 최고 지도와 엄격한 당 규율 발전이라는 요소를 가진다고 그는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1832년 선거법 개정과 함께 과거 토리당이 보수당, 휘그당은 자유당으로 개명했고, 산업혁명 후 노동 계급이 성장하면서 1906년 노동당이 결성돼 보수당과 양당 체계가 자리를 잡았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본래 하나의 정당이었는데, 1824년 진보 세력이 독립해 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양 정당이 기틀을 닦았다. 이들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관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나라 최초 근대 정당은 1918년 8월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신한청년당이다. 독립 운동 단체로, 당수는 여운형이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우파, 중도, 좌파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승만·김성수·김구·조만식·김규식·여운형·김원봉·박헌영 등이 각각의 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지지를 바랐다. 막스 베버의 말을 빌리면 근대적 정당이라기보다는 명망가 정당에 가까웠던 셈이다.

70여 년이 지난 뒤 우리나라의 정당은 여전히 명망가 정당에 머물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야당은 당 대표의 의중이 당 운영을 지나치게 좌우하고, 비정상적인 강성 지지층들이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당의 근간인 권리 당원들은 지역 내 특정인 몇몇에 의해 관리되며 선거민의 의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권력자의 줄을 잡거나 대규모 자금을 들인 조직의 힘이 없으면 지방의원, 국회의원, 단체장이 될 수 없는 구조다.

반복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의 실언·나태·무능력·비위·범죄 등은 줄과 조직만 강조되는 우리나라 정당의 폐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비민주적인 정당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8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